

“내란 청산·민주승리 약속…오월 정신 계승”

1980년 5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운명을 던진 민주열사들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지역 곳곳에서 절정을 이뤘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라는 주제로 금남로 일대에서 치러진 5·18전야제를 비롯해 민주평화대행진, 오월시민난장 등에 참여해 ‘그날의 진실’을 배우고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어갔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5·18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오월 광주, 민주주의의 대축제’ 기치로 열렸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전야제는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민주승리를 약속하는 축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대동세상의 오월정신을 뿌리로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도록 구성됐다.

체험·연극…비상계엄·탄핵정국 등 위로·응원 메시지 대행진 5000명 추모…주먹밥 나눔·현혈의 집 부스도

시민들은 오월의 이야기와 광주의 역사를 통한 자긍심과 오월 정신을 통한 정의의 실현하는 모습을 공연, 노래, 춤 등으로 담아낸 전야 무대를 감상했다.

특히 올해 전야제는 80년 5월과 12·3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까지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로 꾸며져 오월정신을 다시금 새겼다.

전야제에 앞서 광주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북동성당, 전남대학교, 광주역에서 출발해 금남로까지 이어진 ‘민주평화대행진’에는 공직자, 시민단체,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해 추모행진을 펼쳤다.

대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오월정신 계승’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80년 당시 5월 민주대행진을 재현하며 열사를

을 추모, 광주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락을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규탄 집회에서 광장에 촛불 대신 처음 등장한 형색색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차량 통제가 이뤄진 금남로 일대에는 5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추모와 축제가 공존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부스를 찾아 오월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해외에서 광주의 오월을 추모하기 위한 이들도 금남로의 시민난장 부스들과 전일빌딩, 5·18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 사적지를 둘러보며 오월 정신을 키우며 당시

광주의 80년 5월을 제감했다.

특히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스를 이동하며 해결하고 배우는 미션 투어 프로그램인 ‘민주결사대’는 시민들의 발길로 났다.

오월어머니회는 주먹밥 나눔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썬 주먹밥을 나눠주며 80년 5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던 ‘주먹밥 정신’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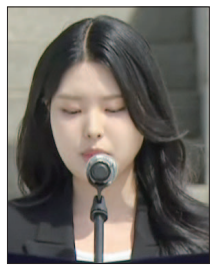
또 오월 현혈의 집 부스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혈액이 부족한 부상자들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현혈에 적극 동참했던 오월 정신을 알리는 모습도 보였다.

5·18행사위 관계자는 “12·3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목에서 맞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민주·평화·인권·희망과 나눔, 연대의 아이콘인 오월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김남준



김유민

경과보고 낭독한 미래 세대들 김남준·김유민 전남대학교 학생

18일 염수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5·18이 흘려온 경과보고를 낭독한 미래세대가 주목을 받았다.

김남준·김유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이날 기념식 순서 중 하나인 경과보고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이 가져온 흔적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5·18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에 나선 김남준씨는 “다시 오월이 찾아왔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써 내려간 희망에는 무수히 많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5·18 역사를 읽어 내려갔다.

이어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마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굳건히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상처를 아루만져주는 파스한 오월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자랑스러운 오월을 써 내려가겠다”고 경과보고를 마무리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오월단체, 상처 덧난 정부 주관 기념식 ‘유감’

무대 좌우 무장요원 배치
‘죽은 군인 위한 노래’ 사용
헌법 수록 언급 없는 기념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시민이 아닌 군과 경찰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오월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18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염수됐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은 80년 계엄군의 살인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로운 사건”이라며 “희생자의 뜻을 기리고 유족과 광주시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돼야 할 기념식인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념식 중 묵념 시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 사용, 제복을 입은 군인이 경찰의 현화 도우미, 기념식 무대 좌우에 무장 군인 배치한 점을 꼬집었다.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는 계엄군 즉 군인이었다”며 “정부가 기념식을 준비할 때 5·18이 왜 발생했

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재단은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에 대해 “이 대행의 기념사에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 지속’, ‘기념사업법 제정’, ‘유공자 처우 개선’ 등 5·18민주화운동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묵념곡은 최근 5년간 사용된 곡이며, 현화 도우미는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임실호국원 의전단으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

안창호 인권위원장 기념식 참석 불발

지역시민단체 “내란 부역자, 오월 영령 참배 자격 없어” 저지

광주 지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시민의 거센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18일 오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한비탕 소란이 벌어졌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 수사에 대해 방어권 보장 등 안전을 상정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묘지 입구인 민주주의 문에서부터 ‘내란부역자를 광주는 거절한다’, ‘오월영령의 이름으로 안창호를 처단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안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시민이 안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했으나 경찰·경호 인력의 저지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발은 민주주의 문에서 30여

m 떨어진 보안검색대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의에 나선 인파 일부가 넘어지면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뻔한 상황도 빚어졌다.

거센 반발에 안 위원장은 끝내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제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행했다.

이에 오월어머니집 등은 “안 위원장은 위헌적 12·3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침묵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 내란 공범이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5·18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에서 광주역과 전남대, 조선대 등지에서 출발한 시민들로 이뤄진 ‘민주평화대행진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남대학교
대학원·세종대
내부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나코스